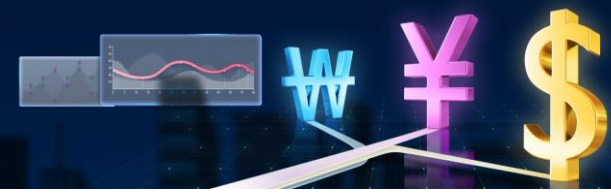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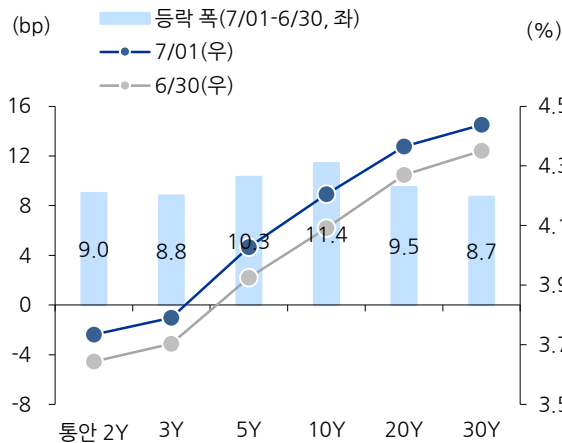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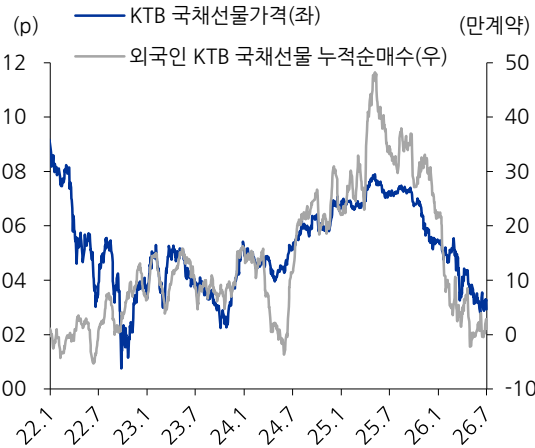
(단위: %,bp, 톱)

	7/1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791%	8.8	1.9	83.8
	한국 국고채 10년물	4.205%	11.4	3.4	82.0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41.4	38.8	39.9	43.2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2.93	-36.0	-10.0	-251.0
	10년 국채 선물(LKT)	106.07	-119.0	-33.0	-685.0
	미국채 2년물	4.179%	0.3	3.1	70.7
	미국채 10년물	4.480%	1.3	8.7	31.2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30.1	29.2	24.5	69.6
	독일국채 10년물	2.879%	2.0	1.8	2.4
	호주국채 10년물	4.784%	6.4	1.9	3.0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전구간 대폭 약세 마감. 환율 급등에 따른 영향.
- 전일 미국 구인구직보고서 호조로 인해 상승 출발한 금리는 원/달러 환율이 1,560원에 육박하면서 상승폭 빠르게 확대. 미국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뿐 아니라 엔화가 163엔 가까이 급등하는 등 4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에 연동한 흐름.
-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된 것도 환율과 금리에 부정적 영향. 국내 금리, 환율 발 물가 우려와 인상 우려 동시에 반영하며 전구간 급등.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세도 이어짐.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
-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금리는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상승폭 일부 반납하기 시작. 워시 의장은 지난 4주간 기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고 언급.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포워드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복했지만 물가에 대한 태도가 다소 후퇴했다는 인식에 금리 하락 전환.
- 이후 ISM 제조업지수 발표와 함께 금리 추가 하락. 하위 지수 중 물가지수가 절대값은 여전히 높지만(73) 종전 및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급락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 그럼에도 고용 호조 여파 및 비농업 고용 대기 등으로 금리 상승폭 반납은 일부에 그침.

자료 출처: 연한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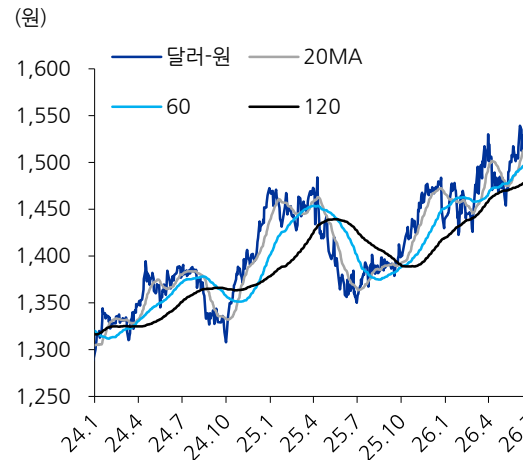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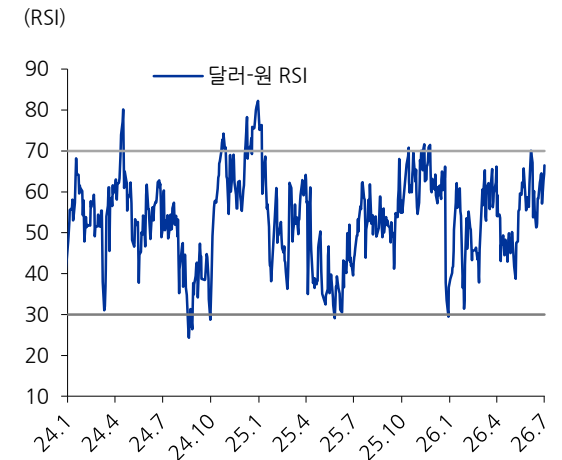
(단위: %, \$)

	7/1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554.90	0.4%	0.8%	8.1%
	달러지수	101.42	0.3%	-0.1%	3.2%
	달러/유로	1.138	-0.4%	0.2%	-3.1%
	위안/달러(역외)	6.79	0.1%	-0.3%	-2.7%
	엔/달러	162.56	0.0%	0.5%	3.8%
	달러/파운드	1.327	0.1%	0.8%	-1.4%
상품	WTI 근월물(\$)	68.58	-1.3%	-2.5%	19.4%
	금 현물(\$)	4,031.28	0.6%	1.0%	-6.7%
	비트코인(\$)	60,180.00	2.2%	0.6%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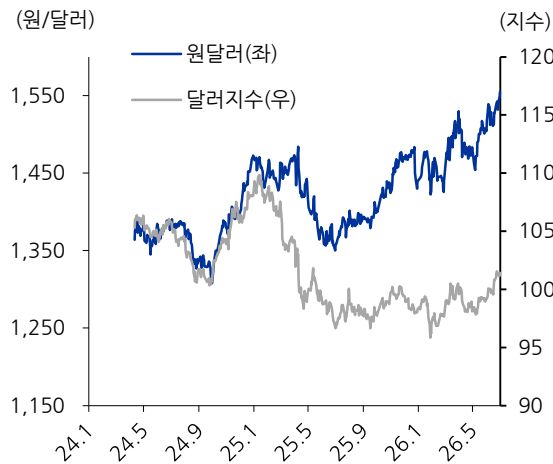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외국인 증시 순매도 및 엔화 약세 지속에 +5.50원 상승한 1,554.90원에 서울환시 마감(야간 1,551.20원).
-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를 -1.7조원 순매도(9거래일 연속 총 -30.1조원)하며 원화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원화와 커플링 보이고 있는 엔화 또한 약세 지속되며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 달러-엔은 일본 외환당국의 지속적인 구두개입에도 162엔 후반대까지 상승. 달러-원은 장중 1,560원선을 위협.
- 달러-원은 야간거래에서 주간종가 대비 -3.70원 하락한 1,551.20원에 마감. 워시 의장의 완화적 발언 영향. 당분간 외국인의 증시 자금 유출은 이어질 가능성 높으나 일본 외환당국 실개입에 대한 경계, 연준 인상 우려 다소 완화된 점은 원화에 긍정적 요인.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유로존 물가 우려 완화됨에 따라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며 상승(DXY +0.3%).
- 유로존 6월 CPI(잠정)는 2.8%yoy 상승하며 예상치(3.0%) 하회. 근원물가 또한 2.4%yoy 기록하며 예상(+2.6%) 하회.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추가 금리인상 기대 하락함에 따라 유로는 약세, 달러는 상승.
- 달러는 이후 워시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소화하며 강세폭 일부 축소. 워시 의장은 지난 4주간 기대인플레이션과 인플레 위험이 낮아졌다고 평가.
- 유로존 물가 하방 서프라이즈로 유로 대비 달러 강세는 이어질 전망. 다만 6월 ISM 제조업 PMI 가격지수 하락(전월비 -9.1p)과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흐름(WTI -1.3%)에 글로벌 강달러 우려는 소폭 완화됨.